4반세기 각자도생…인구도 경제력도 충청권에 추월 당해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2> 왜 상생협력인가

전문가 5인의 진단

광주일보는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경수 광주대교수(광주시·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민선 6기 광주시인수위원), 최지호 전남대교수(민선 6기 전남도 인수위원) 등 5명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호남 상생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요약 정리한다.

이들은 광주·전남·전북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체 성장을 위해 연계·협력보다는 경쟁·대립한 결과 호남이 영남은 물론 충청에도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중앙정부 지원 감소, 광역 경쟁체제 등의 외적 요인, 정치·경제력 감퇴, 인구 감소 및 젊은층 유출 등의 내적 요인 속에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호남 발전의 기회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높았다.

◇상생발전은 민선 6기의 시대적 요청=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간적 인접성을 갖는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이 지역 발전의 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범위를 호남권으로 설정하고 광주와 전남·북이 '광역화되고 분업화된 상생의 공간'이 돼야 한다"며 "물리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정서적인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미래 상생협력부터 시작=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 추구 정책 속에서 호남권의 당면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인구 감소로 지역 내 소비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 속에 지역정치 역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 속에 지자체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구역 중심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근시안적 사고'라는 것이다.

그는 "호남의 독자적인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자립적 경쟁력을 높이면서 외부의 자원과 사람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광역적 협력이 지역발전 최고 수단
연대 통한 정서적 동질감 회복 우선"

■ 김재철 광주발전연 연구원

"호남 독자적인 시장 규모 키워
외부의 자원과 사람 끌어들여야"

■ 노경수 광주대 교수

"지자체들 경쟁 지속 동반위기 직면
일체화된 경제통합이 신성장 동력"

■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3개 시·도 공감대 형성부터
100년 내다보는 큰 그림 그려야"

■ 최지호 전남대 교수

"전략적 제휴 통한 공동마케팅 도입
자원 공유 공동 브랜드 개발 나서야"

◇'행정구역 허물기'로 동반 발전 도모=노경수 광주대교수는 호남권 내 지자체들의 갈등과 대립 속에 동반 위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개별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인프라 연계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이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신뢰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공간적 분업과 협력을 통해 일체화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호남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원을 창출함과 동시에 내발적 지역혁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호남 미래 100년을 보는 큰 그림 그려야=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민선 6기 광주시장 직무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상생 전략'을 짜냈다. 그는 광주·전남·전북의 주요 정책 결정자인 시장과 도지사, 시의회와 도의회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장은 "공동의 지혜를 마련하면 상생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남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제휴 통한 공동마케팅으로 기회 선점=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최지호 전남대교수는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마케팅 도입을 권장했다. 상호이익을 위해 자원을 공유·교환·통합해 조직적으로 접근, 경쟁하면서도 정책 및 사업의 공동 개발 및 공유,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판촉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간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결의 경제성에 기초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경우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파생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난장판'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乙) 후보로 전략공천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회견을 하던 중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거친 항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기동민 "당 결정 수용" 서울 동작을 출마 선언

허동준 반발…당 지도부 금태섭 수원 영통 전략공천 시도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乙) 후보로 전략공천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기 전 부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며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큰 용기라 생각했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제 스스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번 재보선의 엄중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전략공천에 대한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제 결정으로 인한 그 어떤 호된 비판도 피하지 않고 맞겠다"며 허 전 위원장에게 "평생의 빚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허 전 위원장과 지지자들이 격하게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회견은 중단됐다.

기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도중에 허 전 위원장이 "절대 안 돼", "나와! 안 나와?"라고 거칠게 항의하며 회견장으로 들어섰다. 이때 당직자들이 막아서자 "손대지 마, 놔 이 XX야"라며 뿌리치고 연단에 올라서 기 전 부시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23년 지기 등에 비수를 꽂게 하는 패륜적 행동을 한 김한길 안철수 사퇴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기 전 부시장은 출마선언을 끝마치지 못한 채 뒷문으로 나왔다.

한편, 새정치연합 수뇌부가 안철수 공동대표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을 야당 강세지역인 수원 영통에 전략공천하려 해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원 3곳과 광주 광산을의 전략공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뜬금없이 금 전 대변인이 수원 영통에서 다른 후보를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략공천 하려 하자, 우원식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회의는 중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송환기 새누리 당협위원장 광주 광산을 보선 출마 선언

새누리당 송환기 광주 광산구을 당협위원장은 8일 "야당과 여당의 상생 정치, 균형 정치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면 광주 정치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며 "집권여당 후보로서 광주와 광산을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지역 정치인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민심을 돌아보는데 충실하지 않고 오직 공천을 받기 위한 계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한 뒤 "광주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과 정치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